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 분석

최애경*

부산정보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강영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 장애인관, 그리고 장애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속담에 가장 많이 나타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영역이었다. 둘째,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알기 위해 장애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속담에서는 교훈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긍정적인 장애인관보다는 부정적인 장애인관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속담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장애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능력, 도리, 가정생활 등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속담, 장애, 장애인관, 장애관련 내용

1. 서론

속담은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얻고 널리 퍼진 민족에게 공통된 격언이라고 하며, 한 민족의 문화적·정신적 가치관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한다(신기철·신용철, 1983). 일반적으로 속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민족들의 생활양식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생활에 대한 교훈과 경계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민족의 생활이 반영된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송교, 1999). 따라서 속담은 일상적이고 잘 알려진 진리나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관심사를 표현하여 통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속담에 담긴 내용이 실제로 모두 다 옳은 것도 아니며, 만들어진 시대의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장애를 소재로 하는 장애관련 속담의 경우 장애에 대한 비하와 편견의 차별적 사회구조가 쉽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속담이

* 제1저자

** 교신저자 (kangys@pusan.ac.kr)

선인들의 다양한 인생경험과 지혜를 보여주고 담는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속담은 사회의 보편적 진리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아동들의 경우 장애에 대한 편견이 내포된 속담들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게 되거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가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리거나 잠재적으로 내면화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위력을 잘 나타내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다. 비난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다. 그러나 칭찬하거나 희망이 넘치는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속담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도 혹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속담이 친숙하고 구체적일수록 아동들은 속담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Nippold, 1998),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책이나 TV 프로그램, 공연물 등 매우 다양한 언어표현 상황 속에서 속담이 사용되기 때문에(조복희·이주연, 2007) 속담의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또한 윗세대로부터 구전되어온 가치는 무의식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담에 내재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의식이 장애인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형성은 4~5세경부터 형성되기 시작되는데(Conant & Budoff, 1983; Diamond & Hestenes, 1996), 장애에 대한 편견도 이 때 내면화되고(Derman-Sparks, 1989), 9세경에 형성된 이러한 편견적 태도는 이후 인생의 과정에서 큰 계기가 없으면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기에(Bakken & Derman-Sparks, 1996),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어릴수록 용이하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형성은 유아기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에(Gomez, 1991)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이미지나 고정관념, 선입견이 어린 시기부터 생길 수 있다는 이러한 선행결과들도 있지만, 이러한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형성은 장애아동과의 직·간접적 경험과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장애인관은 장애 및 장애에 대한 태도로 학령기 전부터 형성되며, 도서 또는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장애인관, 부모와 또래의 장애인관, 장애인관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학교교육이 영향을 미친다(우이구 외, 2004).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이미지나 태도는 통합교육의 경험 유무 등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을 다르게 인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나 교사, 지역사회 사람들 즉 아동의 사회적 집단 구성원들의 영향에 의해서이다(이소현, 2005).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태도는 유아가 속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나

언어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영향(Hohensee & Derman-Sparks, 1992)을 받고 특히,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 등이 속한 문화, 견해 및 태도에 영향을 받기(Gomez, 1991)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동의 장애인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관념들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홍중·오종희·이강희(2001)의 연구결과를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측면에서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관은 속담을 사용하는 교사와 아동들의 잠재적인 장애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이 어떠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속담을 통해 장애이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대중적인 과급효과와 널리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을 통해서 장애인관을 파악해보는 것 역시 아동들의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장애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속담들의 양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속담을 활용한 연구들이라도 국문학, 문학, 민속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송교, 1999; 안경화, 2001; 이수미, 2003; 조복희·이진숙, 1998; 조복희 외, 1998; 주옥파, 2000), 교육현장에 속담을 접목시켜보려는 시도는 예상외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공지현, 2005; 국동식·이철우, 2005; 김상규, 2005; 김은주·서영희·임재택, 2006). 국어교과 영역에서 속담을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으나(박정안, 2001; 이종철, 1995; 조남호, 2000; 최재학, 1998), 장애관련 속담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를 소재로 한 속담분석을 실시한 김창수(2006)와 지체장애관련 속담들을 분석한 심홍식(2002)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전체 장애영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부분적인 장애영역과 관련된 속담에 한정하여 분석되었기에, 전반적인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이나 속담에 나타난 의미의 해석을 알아보는 데는 부족한 편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속담을 사용한 인지적 향상을 위한 속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Mieder & Holmes, 2000).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서 장애관련 속담을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장애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동시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이해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은 어떠한가?
2.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관은 어떠한가?

3.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은 어떠한가?

II. 자료수집 및 분석

1.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속담이다.

분석대상 속담의 선정을 위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내용분석에 사용된 속담은 송재선(2006)의 우리말속담 큰사전과 이기문(2001)의 속담사전 두 권을 중심으로 발췌되었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의 분석절차를 거쳤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자 2인과 연구보조원인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이 두 개의 속담사전에서 정리해 놓은 해석을 토대로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장애의 의미를 직접적·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속담을 1차적으로 247개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속담들에 관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 간의 집단적 토의과정을 거쳐 이들 가운데 내용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속담을 배제하여 2차적으로 89개의 속담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속담의 내용이나 의미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더라도 문장의 순서나 장애 유형의 호칭을 포함한 몇몇 어구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되는 속담의 용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속담이 달리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된 어구가 거의 유사한 속담들은 해석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89개의 속담들에 대하여 대학원에서 속담을 전공한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50개의 속담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인관, 장애관련 내용이라는 3개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framework)을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 5월 25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11개의 장애영역을 참고로 하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제외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의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 밖에 2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여 총 11개의 범주를 분석틀로 정하였다. 선정된 속담 50개는 속담에 포함된 단어들을 토대로 각각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에 포함된 단어는 ‘봉사’, ‘소경’, ‘장님’, ‘눈 먼’ 등이다.

둘째,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귀납적 코딩 과정을 거쳤다. 코딩 범주를 추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각각의 속담을 긍정적·부정적 두 개의 범주로 1차 코딩하였고 다음으로 긍정적인 가치의 속담은 능력, 극복, 의지로, 부정적인 가치의 속담은 경멸, 무시, 무능력, 차별의 하위범주로 2차 코딩되었다.

셋째,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안경화(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주제별 속담분석기준에 따라 장애관련 속담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추출 과정을 거쳤다. 속담의 주요 주제인 언어, 능력, 인생, 도리, 심성, 행위, 가정 등에서 1차적으로 코딩된 주제 범주는 능력, 도리, 가정생활의 3개였으며, 2차적으로 상위분류 범주에 따른 하위 영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장애관련 속담의 내용범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장애관련 내용범주

| 범주 | 하위 주제 |
|------|---|
| 능력 | 불편 부족(도움) 무지 특기 잠재력 극복(의지) |
| 도리 | 심성(사리분별) 말조심 분수 |
| 가정생활 | 효도 가족관계 |

한편 분석과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Patton(1990)의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중 연구자들이 해석한 결과를 다른 분석자와 같이 읽고, 각 분석범주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치는 분석자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속담의 기본적인 해석은 분석대상이 된 속담을 발췌한 속담사전들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속담의 의미가 함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자들과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특수교육학 전공의 동료연구자들에게 해석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지속적으로 구하여(peer debriefing), 연구자들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의 분석결과는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들과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유형별로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들을 분석한 결과, 장애나 장애인을 묘사한 용어는 왜곡된 고정관념이 내재되어있거나 장애인을 폄하하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긍정적인 용어들보다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장애와 관련된 용어나 장애인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장애유형이 명확히 드러난 대표적인 속담을 장애유형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가 포함된 속담에는 봉사, 소경, 장님 판수, 눈 먼 등의 장애관련 용어들이 포함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은 다음과 같다.

- 봉사 활쏘기다
- 소경 거울보기다
- 장님 코끼리 말하듯
- 아동 판수 외 듯
- 눈먼 장닭같다

둘째, 청각장애와 관련해서는 귀머거리, 귀먹은, 병어리 등의 호칭이나 용어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각장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속담은 다음과 같다.

- 귀머거리 귀 있으나 마나
- 병어리치고 마음고운 놈 없다
- 병어리 두 목 떠든다. 꿀 먹은 병어리
-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

셋째, 정신지체와 관련해서는 꼴값, 바보, 병신 등의 용어들이 속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장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속담은 다음과 같다.

- 바보는 가르쳐도 모른다

- 바보는 죽어야 고친다
- 바보는 잠자코 있으면 똑똑해 보인다
-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넷째, 지체장애와 관련해서는 절름발이, 곱사등, 앓은뱅이, 곰배팔이, 난장이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속담은 다음과 같다.

- 절름발이 천리 간다
- 대대 곱사등이
- 앓은뱅이 용쓴다
- 곰배팔이 담배 목판 끼듯 한다
- 난장이 교자군 참여하듯

다섯째, 의사소통장애와 관련해서는 언청이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의사소통장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속담은 다음과 같다.

- 언청이 아가리에 콩가루
- 언청이 통소 대듯
- 언청이 굴회 굴리듯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담 속에 포함된 장애관련 호칭이나 용어들을 통해 부정적인 장애인관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문헌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조사한 조홍중·오종희·이강희(2001)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을 역사적으로 멸시와 학대, 배척의 대상으로 삼아온 차별적 장애인관이 속담 속에도 반영되어 장애관련 용어들에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어리, 귀머거리, 절름발이, 앓은뱅이, 난쟁이, 소경, 봉사, 장님, 머저리 등의 눈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외관상 특별히 표시가 나지 않는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를 포함하는 영역의 장애관련 용어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의 신체적인 장애와 관련된 장애용어들이 속담에 더 많이 나타났다. 이 밖에 건강장애 영역과 관련된 용어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건강장애의 개념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구전되어온 속담에는 구조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건강장애가 포함된 용어의 속담은 없었다는 것과는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장애관련 용어들이 포함된 속담을 장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어느 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하거나 장애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영역은 기타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표 2>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

| 장애 유형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정신지체 장애 | 지체 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 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 장애 | 건강 장애 | 발달지체 | 기타 | 합계 |
|-------|-------|-------|---------|-------|---------|--------|--------|-------|-------|------|----|----|
| 빈도 | 12 | 6 | 4 | 14 | · | · | 4 | · | · | · | 10 | 50 |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빈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순이었고, 이 가운데 지체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정신지체장애유형은 보다 적게 나타났고, 나머지 장애영역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 특정 장애영역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속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창작동화를 대상으로 한 박남수·권정순(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창작동화에 나타난 장애유형이 지체장애가 가장 높은 점에서 일치된다. 또한 유아대상 동화 속의 장애인물을 분석한 김희경(2003)의 연구에서도 지체장애 영역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교과서를 분석한 일부 연구들(권택환·김수연·박은영·이유훈, 2003; 김수연·권택환, 2004; 최영하·김미령, 2004)에서도 역시 지체장애 영역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분석에는 정서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영역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외견상 비장애인과 쉽게 구분되는 다른 장애영역과 달리, 이들 장애영역이 두드러지게 큰 표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장애의 경우는 정신지체와 비슷한 맥락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건강장애는 속담에 나타난 장애관련 용어들의 분석에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최근 들어 규정된 장애유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에서 규정된 것처럼 다른 장애영역과는 개념상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속담들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의 장애인관보다는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더 많이 엿볼 수 있었으며, 교훈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긍정적인 이

미지를 담고 있기보다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부정적인 장애관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장애인을 경멸하고 무시, 천시, 비하, 편견, 차별의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보여주는 속담은 다음과 같다.

- 앓은뱅이 앓으나 마나
- 언청이 퉁소대 듯
- 병신이 꼴값한다
- 눈먼 놈이 앞장선다
- 소경 개천 나무란다
- 곰배팔이 담배 목판 끼듯

위에서 제시된 속담들은 장애인을 남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장애인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차별적인 장애인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 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즉 장애인관에 있어, 전통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왔음을(권명옥·서화자, 2004)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속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에 의한 부정적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거나 별개의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이익섭, 1991),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변형인 전통적 장애자관의 한 단면이 만연해 있음을(오세철, 1986)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속담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문화 속에 내재된 부정적인 면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현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불충분한 장애이해와 잘못된 장애인관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속담이 지극히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만(오소정, 2001), 장애인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장애 전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속담의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타인에게 짐이 되는 무능력하고 열등한 존재 혹은 도움을 받거나 수동적 존재, 또는 장애인을 동정하는 속담 역시 다음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보지 못하는 소 멩애가 아홉
- 곱사등 짐지나 마나
- 앓은뱅이 용쓴다
- 소경문고리 잡기
- 소경에게 길묻기이다

이러한 속담의 예들은 조홍중·오종희·이강희(2001)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동질성이 강한 보편인간 지향에 의한 편견이나 완전인간의 지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의 능력,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보여주는 속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
- 곰보치고 마음 나쁜 사람 없다
- 장님이 흑백을 가린다
- 여럿이 가는 데 쉬이면 병든 다리도 끌려간다
- 열 소경에 한 막대

이러한 속담들은 장애인을 나약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존재로 보았던 전통적인 장애인관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의지, 특기 등 장애인에 대한 능동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일상의 언어생활에 자리 잡은 속담의 대중성과 사용 빈도를 생각할 때, 장애관련 속담에 드러난 장애인관의 내용분석 결과는 향후 교육장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교사가 비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약점뿐만 아니라 능력과 강점들도 포함해서 교수목표를 짜야한다는 이소현(1996)의 연구결과처럼,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아동들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속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속담뿐만 아니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장애인관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속담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속담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은 크게 능력, 도리, 가정생활의 세 가지 주제로 범주화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의 가치와 보편적인 사고가 주제에 걸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장애인의 능력과 관련된 속담은 다음과 같다.

- 병신 치고 한 가지 재주 없는 사람 없다
- 월천꾼에 난장이 빠지 듯
-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
- 앓은뱅이 용쓴다

- 낮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 문화의 친숙한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속담들은 장애인의 무지, 지적 인 능력의 결여 등의 능력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의 행위를 보여주는 속담의 예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주체성이 떨어진 무능력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관련 속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의 능력을 매우 천시하고 비하하였다는 것이 속담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제시된 속담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속담에 반영된 문화나 정서가 모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모델과 선입견을 제시하여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다.

아동들의 속담이해능력은 일상생활의 속담노출 경험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조복희·이주연, 2007), 올바른 장애인식과 장애인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속담을 추출하여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도리를 보여주는 속담은 다음과 같다.

- 열 소경이 풀어도 안 듣는다
-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 열 병어리가 말을 해도 가만 있거라
- 병신 호미 흠친다
- 질름발이 원행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어서 노력이나 의지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측면의 주제인 운명론적인 표현도 속담에서 나타나고 있다. 속담이 보편적인 이치와 우리 특유의 가치를 담고 있지만(안경화, 2001), 지극히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오소정, 2001) 과거로부터 내려져오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보여주는 용례로 보인다.

그러나 속담이 한 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 전통적 지혜를 담고 있고 그 사회의 전통적인 지식을 반영하고 있기에(김종택, 1994), 위에 제시된 속담들의 경우 말조심과 같은 언행, 사리·심성 등의 도덕, 이치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를 속담에 비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상생활 체험에서 우러난 생활의 지혜가 녹아든 속담활용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에도 기여되는 교육적 효과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속담활용을 통한 교육은 아동들에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유정, 2000), 장애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된 속담활용은 장애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을 돕는 장애이해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속담은 다음과 같다.

-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 소경아이 낳아 만지 듯
- 병어리도 아이 어미가 되면 말을 한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속담을 통해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속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주제인 효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속담의 예를 통해서 선인들의 인생 경험과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능력, 도리, 가정생활 등의 주제를 담고 있는 장애관련 속담의 주제별 분석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속담에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적인 장애인관과 차별의식은 속담을 사용하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통합교육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상 대화 속에서 이뤄지는 개별적인 속담 속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며, 적절한 속담의 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과의 접촉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속담과 같은 매체를 통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어떠한 상황을 은유하거나 풍자할 때에도 자주 인용되는 속담은 일상생활 중에서 수시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생활용어로, 짧은 말이지만 의미심장하고 교훈성이 있다. 또한 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속담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민족의 도덕관과 생활의식과 정서를 알 수 있고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관련 속담을 고찰하여 장애관련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 장애인관, 장애관련 내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이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담에 나타난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지체장애 영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습장애, 건강장애, 언어장애 등은 극히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특정 장애 영역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체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눈에 쉽게 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속담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니지만, 지체장애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최영하·김미령, 2004; 홍용신·천희영, 2005). 또한 조사된 장애유형이 지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에만 한정되어 있고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권명옥·정향란(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둘째, 장애관련 속담에는 장애인을 능력 있는 존재, 극복하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는 긍정적인 장애인관보다는 무시, 비하, 편견, 차별 등을 내포한 부정적인 장애인관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훈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보여주는 박순례(2006)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인데, 이러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사회정서를 반영하는 창작동화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최근 들어 장애인의 인간승리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공을 보도하는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속담의 특성상 오랜 세월동안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보고 있는 시각이 속담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관련 속담을 내용분석한 결과 능력, 도리, 가정생활 등의 주제로 묶여졌다. 또한 내용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인생, 심성과 관련된 속담도 적은 편이지만 부분적으로 있었다. 내용분석에 사용된 속담의 주제에는 장애인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장애로 인한 무능력에 관련된 속담이 많았고,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극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속담도 부분적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장애관련 속담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아동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고정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서 속담을 활용한 교육적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장애관련 속담 활용방안과 속담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들의 속담 사용 빈도나 속담이해능력을 통해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 및 학습장애와 같은 인지적 장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속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의 하나의 방안으로 장애관련 속담의 올바른 용례를 통한 현장 적용후 그 효과를 실험적·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속담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타당한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은 수의 속담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 다면적인 측면의 내용분석이 포함된 새로운 틀과 합리적인 분석기준을 포함한 심도있는 분석과 보완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공지현(2005). 아랍어 속담을 활용한 아랍어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9(2), 1-27.
- 국동식, 이철우(2005). 일기속담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과학수업에의 이용. **과학교육연구 소논총**, 39-67.
- 권명옥, 서화자(2004). 장애인관의 발달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3), 339-365.
- 권명옥, 정향란(2004). 초등학교 교과서의 장애이해 관련내용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1(2), 193-212.
- 권택환, 김수연, 박은영, 이유훈 (2003). 유·초등학교 교과용도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연구보고서**, 2, 국립특수교육원.
- 김상규(2005). 속담을 통한 돈의 속성 분석 및 금융경제교육. **경제교육연구**, 12(1), 19-143.
- 김승교(1999). 속담에 나타난 가치관의 비교. **영어영문학**, 18(2), 81-101.
- 김수연, 권택환(2004).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장애관련 내용분석. **초등교육연구**, 17(2), 471-497.
- 김은주, 서영희, 임재택(2006). 한국 속담에 나타난 전통 아동교육관 연구. **아동교육**, 15(4), 37-55.
- 김종택(1994). 속담의 기능과 의미구조. **새국어생활**, 4(2), 26-45.
- 김창수(2006). 속담을 통해본 한국인의 시각장애인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희경(2003). 장애관련 동화의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남수, 권정순(2005). 우리나라 창작동화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분석. **초등특수교육연구**, 7, 67-84.
- 박순례(2006). 창작동화속에 나타난 장애이미지 분석을 통한 장애의 교육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안(2001). 속담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지도방법.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재선(2006). **우리말속담큰사전**. 서울: 서문당.
- 신기철, 신용철(1983).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심홍식(2002).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속담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방안. **한국어교육**, 12(1), 143-163.
- 오세철(1986).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우이구, 김수연, 권택환, 박은영(2004).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장애관련 내용분석. **연구보고서**, 4, 국립특수교육원.
- 이기문(2001). (개정판) 속담사전. 서울: 일조각.
- 이소현(1996).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초등교육연구**, 10(1), 47-62.
- 이소현(2005). 장애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 고찰. **유아교육연구**, 25(6), 277-303.

- 이수미(2003). 속담의 의미적 특수성과 기능 - 진실성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27, 183-203.
- 이익섭(1991). **장애인복지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종철(1995). 속담의 형태적 양상을 바탕으로 한 속담의 지도방법. **국어교육학연구**, 5, 141-166.
- 임유정(2000). 속담의 지도방안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남호(2000).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속담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5, 141-158.
- 조복희, 안선희, 이영환,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가치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8), 105-122.
- 조복희, 이주연(2007). 후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관한 연구: 속담의 친숙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8(5), 19-36.
- 조복희,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19(1), 5-25.
- 조홍중, 오중희, 이강희(2001). 한국의 문헌에 나타난 장애인관. **광주보건대학논문집**, 제 26권.
- 주옥파(2000). 한중속담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 **선청어문**, 32, 234-254.
- 최영하, 김미령(2004). 초등학교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분석. **초등특수교육연구**, 6, 1-22.
- 최재학(1998). 속담과 국어교과와의 연계학습을 통한 어휘력 신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용신, 천희영(2005).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신문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5), 149-161.
- Bakken, L., & Derman-Sparks, L. (1996). *Developing Anti-bias identities: Earlychildhood,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Multi-Cultural Education 4(2), 20-22.
- Conant, S., & Budoff, M. (1983). Patterns of awarenes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ability. *Mental Retardation*, 21, 119-125.
- Derman-Sparks, L. & the A.B.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ED 305 135).
- Diamond, K. E., & Hestenes, L. L. (1996).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disabilities : The saliences of disability in children's ideas about other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4), 458-475.
- Gomez, R. A. (1991). *The development of racial stereotypes in children and education's response :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literature*. (ED378 077).
- Hohensee, J. B., & Derman-Sparks, L. (1992). *Implementing an anti-bias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ERIC Digest. Urbana, IL: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Childhood Education. (ED 351 146)
- Mieder, W., & Holmes, D. (2000). *Children and Proverbs speak the truth : Teaching proverbial wisdom to fourth graders*.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Nippold, M. A. (1998). Later language development : *The school-age and adolescent years*(2nd Ed.) Austin, TX : Pro-Ed.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Disability in Korean Proverbs

Choi, Ae-Kyung

Busan Info-Tech College

Kang, Young-Sim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attributes of disabilities in proverbs. Proverbs provide us with various suggestions regarding inclusive education because they contain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experiences in real life and wisdoms of ancestors. In addition, they are interesting and simple to understand and thus easily applicable to real everyday life.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 of disability, views of disability, contents related to the disabil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appear predominantly in the proverbs. Second, negative perceptions larger than positive perceptions about disability. Third, the types of themes involved in proverbs represented ability, propriety and home life.

Key words: Proverb, Disability, Views on Individuals with Disability, Contents Related to the Disability

논문 접수: 2008. 5. 5 심사 시작: 2008. 5. 13 게재 확정: 2008. 6. 20